

불교 교육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고 진 호

동국대학교

〈요 약〉

이 글은 불교교육학의 정체성 논의에 입각해서 불교교육학 연구의 지향점을 살펴보고 과제와 전망을 탐색하는 목적이 있다. 먼저 이 글에서는 불교교육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은 궁극적으로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기반위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의 문제를 학문적(연구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다루어 나가고자 하였다. 불교교육학의 학문적(연구의) 특수성은 불교교육학 연구가 여타의 교육학 하위연구 분야와 차별성과 독자성을 갖는 측면으로서, 불교가 그 중핵적 기반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반면에서 학문적(연구의) 보편성은 불교교육학 연구가 일반교육학적 인식범주에서 인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측면에서 언급되었다. 이 글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불교교육학이 학문적(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대립적 요소가 아닌 균형과 조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불교교육학의 연구지향점은 이러한 학문적(연구의)정체성의 기반위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불교 교육학의 연구지향점을 연구주제와 내용의 측면과 연구체제와 방법론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나가고자 하였다. 불교교육학 연구의 지향점의 두 측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학문적(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의 조화가 불교교육학 연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보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불교교육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어 :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특수성, 보편성, 응용불교학, 교육현실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불교 교육학 연구는 1970년대 박 선영 교수의 불교와 교육학 관련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연구는 불교의 사상이 현대 교육학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졌다.¹⁾ 박 교수에 의해서 주도된 초기의 불교교육학 연구는 주로 신앙적 진리의 체계로서만 여겨져 왔던 불교의 사상 체계를 교육학적 학문의 세계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이러한 학문적 시도는 이미 1960년대부터 서양에서 시작된 불교사상에 대한 학문적 재평가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불교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 불교와 문화를 거시적으로 연계하려는 불교의 대중화 운동등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서양에서 등장한 ‘응용불교학(Applied Buddhist Studies)’은 불교적 수행방식인 명상의 방법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병인을 치료함으로써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일반 대중도 고도의 자기완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²⁾

응용불교학적 시도는 불교의 진리체계가 과학적으로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며, 타학문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불교와 관련학문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시도는 불교진리와 사상체계에 대한 교육학적 탐색을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995년 박 선영 교수의 주도로 창립된 한국종교교육학회는 적박한 연구현실 속에서도 불교와 교육학을 접목한 연구를 《宗教教育學 研究》의 발간을 통해서 양산함으로써, 불교교육학의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바 있다.³⁾

오늘날 불교교육학 분야는 학문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보완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연구의 지향점 모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교교육학은 불교와 교육학이라는 두 축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정체성이 매우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자에 따라 불교교육학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의 체제와 형식에 있어서도 다소간 자의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朴先榮, 《佛敎의 敎育思想》, 서울: 同和出版公社, 1989.

2)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들로서 J. Confield, G. Deatherage, 등이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불교적 수행을 장기간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수행의 임상적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J. Wellwood, 박희준역 《동양의 冥想과 서양의 心理學》,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8. 참조

3) 정혜정의 연구에 의하면, 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90편의 논문과 24편의 단행본, 68편의 학위논문이 양산되었다. 정혜정, 종교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 研究》 제 21권, 33-35.

불교교육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의 다양성 혹은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불교교육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잃고 포류하는 일종의 학문적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상실은 직접적으로는 불교교육 연구의 지향점을 모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불교교육의 연구의 지향점은 전적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를 불교와 교육학의 관계에서 탐색하고 불교교육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불교교육학은 ‘불교(Buddhism)’라고 하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교육학(Science of Education)’이라는 학문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에서 불교의 특수성과 교육학의 학문적 보편성간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탐색은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과 불교교육학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불교 교육학의 연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논의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불교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불교교육학 연구의 지향점을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체제와 방법의 측면에서 탐색하고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불교 교육학의 정체성 탐색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불교와 교육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에서 탐색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불교교육학에 특수성(불교)과 보편성(교육학)의 의미를 탐색하고, 학문적인 조화와 균형을 통해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체성의 확립의 두 요소: 보편성과 특수성

불교교육학은 ‘불교’와 ‘교육학’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학문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을 학문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추구할 수 있다.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보편성은 보편적인 교육학의 ‘학문(Wissenschaft)’⁴⁾ 분야로서 불교교육학의 존립근거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관련이 있다면, 학문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불교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4) 독일어의 ‘Wissenschaft’는 영어의 science와는 달리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인문학)을 아우르는 학문일반의 뜻을 지니고 있다. H. Seiffert, 전영삼역,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stheorie》, 《학의 방법론 입문 II: 비분석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 교보문고, 1994. 참조

불교교육학의 보편성은 불교교육학이 교육학의 학문적 논리체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할 때 확립될 수 있다. 보편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교육학의 경우도 교육학의 분과학문에서 예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의 보편적 근거를 교육학적 차원에서 모색하려는 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불교교육학은 교육학적 학문적 논리와 구조를 반영해야 하며, 불교교육학적 분야의 학술어들이 교육학적 학문공동체내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한 '통약가능성(通約可能性)'을 지닐 때 그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의 한 측면을 이루는 것이 특수성이다. 불교교육학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학적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은 불교를 배제하고는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교교육학의 특수성의 기반인 불교가 단순히 불교교육학의 배타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불교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F. Mayer는 불교의 교조인 불타(佛陀)를 인류의 위대한 교사로 보고 있고⁵⁾, 불교자체를 일종의 교육 자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로 부터 불교 교육학의 정체성 탐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는 불교교육학이 여타의 교육학의 분과학문과 변별되는 학문적 특수성을 내포하게 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학계에서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박 선영 교수에 의해서 시도된 바 있다. 박 선영 교수의 논의의 경우도 종교로서의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특수성의 기반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⁶⁾

불교교육(학)은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신세계나 실천적 삶의 방식 등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가치라고 판단하고 이를 교육의 가치로 도입한 교육(학)을 뜻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 없고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을 닦지 않더라도 모든 극단주의를 벗어나 너와 나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라면 이러한 교육은 불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박 선영 교수의 논의에 있어서도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의 한 측면인 보편성의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자면, 불교 교육학에서는 불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있지만,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강조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보편성의 측면을 종교

5) F. Mayer, 성기산역, 《The Great Teachers》, 《위대한 교사들》 서울: 문음사, 1998, 21-22쪽

6)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宗教教育學 研究》,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제 1권, 40쪽

(교육)로서 불교(교육)가 내포하는 일종의 ‘종교적 보편주의(religious universalism)’에 근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판단된다.

불교는 종지(宗旨)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 함을 갖는 종교적 개방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는 특정종파의 종교적 신념에도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종교적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보편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신앙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논의의 차원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J. Dewey가 언급한 바 있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⁷⁾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신앙적 체계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교의 종교적 보편성은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종교적 보편성’이 곧 불교교육학의 학적 ‘보편성’을 용인될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종교적 보편성은 불교를 타학문과 연계하거나 종교교육의 실천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종교로서의 불교의 특성에서 내재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보편성을 보장하는 지표로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불교교육학은 불교를 중심으로 하여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불교는 불교교육학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특수성은 보편성만큼이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을 불교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할 때 특수성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불타의 가르침이 ‘교화(敎化)’를 통한 인간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교육(敎育)’ 간에는 분명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육학의 학문범주에 불교적 사상이나 진리를 직접적으로 환원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특수성의 의미를 곡해할 가능성이 있고, 학문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2.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위한 과제

이러한 점에서 불교교육학의 정체성 논의에 있어서 ‘불교’를 중심으로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의 측면과 교육학적 보편성의 측면의 조화를 꾀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두 측면이 이상적으로 학적 접목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체적으로 불교교육학에 내재된 불교적 특수성을 교육학적 보편성의 범주 속에서 올바르게 진입시키는 문제와 교육학적 보편성을 불교적 특수성을 기반에서 탐색함으로써

7) J. Dewey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과 종파적 교육(religion education)을 구분하고 있다., 종교적 교육이란 종파적 교육과는 달리 특정 종교적 진리를 믿기 위한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일반 시민이 보편적인 믿음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종교성, 종교정신 함양에 비중을 두는 교육을 의미한다. J. Dewey, *A common fait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2.

학적 지평을 넓혀나가려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불교교육학의 정체성 논의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보편성과 특수성간에는 일정수준 긴장과 대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교육학에서 교육학적 보편성만을 강조하면, 불교의 특수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 예지와 통찰, 상상력이 결여될 수 있고, 반대로 불교의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되면 보편적인 의미로 타당하게 환원되지 못하면,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보편성이 상실될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교교육학적 논의에 있어서 불교와 교육학, 특수성과 보편성이 그 범주를 달리하는 변별적 속성으로 이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의 두 축을 형성하는 ‘불교(특수성)’과 ‘교육학(보편성)’은 개념적으로는 상호 대립적이지만, 학문적 체계상으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인들이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두가지 특성은 상호 절충적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교육학에 내재된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는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논리와 체계형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불교교육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변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밀접한 상호관계성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의 한축으로 ‘특수성’은 ‘보편성’을 예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교교육학적 정체성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보편성은 특수성과의 조화 속에서 모색되어야만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두 축인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적 정체성을 의식적적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불교의 논리체계 내에서만 추구하려는 태도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불교교육학적 논의의 차원에서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에 대한 언급은 필수적인 측면이지만, 이러한 언급이 교육학적인 보편적인 인식범주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불교사상과 진리체계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훌륭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의 논의가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교육학적 사유와 논리체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학문적 ‘객관성’이나 혹은 ‘상호주관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교육학에서 언급되는 불교사상과 진리체계를 교육학적 학문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학문적 메시지로 환원하는 지적 정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의 교육적 의의를 추출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시도되는 연구도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학문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은 교육문제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학의 학문분야로서 성숙,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지향점을 모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III. 불교 교육학 연구의 지향점

불교교육학의 정체성은 불교교육학의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한다.⁸⁾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불교교육학의 연구체계 전반을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불교교육학 연구 분야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1. 연구주제와 내용의 측면

불교교육학의 연구주제와 내용은 교육학의 보편적인 학문적 논리를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불교적 관점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이중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교교육학 연구는 주제와 내용의 측면에서 있어서 불교교육학적 연구과제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측면을 동시에 지녀야하고, 양자 간의 적절한 학문적 조화와 균형감각을 유지해야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불교교육학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난제(難題)일 수 있다.

불교교육학 연구의 주제선정과 내용전개 있어서 학문적 보편성이 논리와 불교적 관점의 특수성중 어떠한 측면이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대립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이 무망(無望)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불교교육학의 연구주제와 내용전개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교육학 연구주제와 내용의 보편성은 특수성에 기반을 둔 보편성이어야 하며, 특수성은 보편성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교육학 연구주제와 내용 전개에 언급되어지는 불교적 개념이나 진리체계가 교육학적 논리와 사유체계 내에서 일정 부분 수용가능하고, 교육학적 문제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연구주제와 내용이 불교적 관점이나 세계관에 기반을 두면서도, 교육학적 논리와 사유체계 내에서 상호이해가 가능하고, 보편적인 교육학의 학문적 준거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교교육학의 연구주제와 내용은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를 상실하고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가치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불교교육학 연구는 연구주제의 선정과 내용의 측면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孫元映은 불교교육학 연구를 위시한 종교교육의 연구가 교육목적이나 방법론에 한정된 연구주제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⁹⁾ 이러한 사실은

8) 불교 교육학 연구가 불교교육의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불교교육학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학문론적 관점에서 전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불교신앙이나 교리 체계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불교교육실천적 논의와 구분하고자 한다.

불교교육학 연구가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정된 종교교육학적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불교와 교육을 적절히 가미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불교사상과 진리체계로부터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 정도를 탐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도의 연구 성과에 만족하게 되면, 불교교육학 연구는 학문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는데 한계를 내포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 교육학 분야의 연구주제와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불교적 사상이나 진리체계가 내포하는 교육적 의의 혹은 시사점을 추출 하려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보다는 먼저,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가 교육학적 학문 논리와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기존의 교육학적 시각과는 어떠한 점에서 보다 더 교육학적인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의 토대위에서 연구 주제의 선정과 내용전개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학적 학문적 논리와 체계 내에서 불교적 관점과 진리체계의 착근(着根)을 시도하려는 지적 탐색이 요망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교육학 연구에 있어서 불교적 관점이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학 연구의 학문적 문제의식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학적 준거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먼저 불교교육학의 연구주제와 내용전개에 있어서 인용된 불교관련 내용들이 학문적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다 냉철하게 탐색하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교육학 연구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불교적 관점이나 개념들이 공동 주관적 이해를 전제로 한 진술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¹⁰⁾ 또한 불교교육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교적 관점이나 개념들이 '사실(fact)'과 '가치(value)'의 측면이 엄밀하게 분리되고 학문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의해서 통합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료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¹¹⁾ 객관성이 결여된 지식에 대한 맹신, 비판과 성찰 없이 진

9) 孫元映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종교교육학 연구》와 기독교육 제통의 학술지인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을 기초로 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을 시도한 바 있다. 孫元映,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년 추계학술집》, 2005, 83-108.

10) 이러한 점에서 불교교육학 분야의 연구주제와 내용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교용어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학적 재검토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불교 교육학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선(Zen), 해탈(Enlightenment), 각성(Awakeness), 연기(dependent-arising)등등의 용어가 교육학적 학술어(terminology)로서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불교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교육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를 교육학적 관련용어와 비교 검토하는 기초 연구과정은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토대구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1) 박 선영 교수는 불교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교육학적 학문논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사실학과 가치학(실천학), 도구학으로 분류한 바 있다.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종교적 성격, 《宗教教育學 研究》, 제1호, 한국 종교교육학회, 1995, 55.

행되는 당위적 주장, 사실과 가치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진술 등을 최대한 배제해나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불교교육학 연구의 핵심적 요소인 불교적 관점이나 세계관이 의미 있는 교육적 지혜와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교교육학 연구가 체계적인 연구로서 존립 발전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체제와 방법론의 측면

불교교육학 연구는 불교와 교육학을 상호 접목한 형식의 연구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교육학 연구는 불교와 인접학문을 연계하고 있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응용 불교학(Applied Buddhist Studies)’과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¹²⁾ 응용불교학은 기존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사상, 진리체계 혹은 수행방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돌파구를 얻어내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응용불교학의 연구체제는 기본적으로 불교사상, 진리체계 혹은 수행방식을 상당 부분 연구에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와 수행방식 등이 정신치료, 심리학, 상담학과 같은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얼마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냐? 와 같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의 서양학문이 갖는 한계를 불교를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응용 불교학은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로서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교교육학 연구체제가 응용불교학의 연구체제와 동일한 방식을 지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교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육학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교육학적 연구절차와 방법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교육학 연구는 체제적 측면에서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사실과 가치, 교육학적 사실과 가치의 측면이 상호 일련의 관련성을 맺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의 체제적 모색이 필요하다. 사실과 가치의 문제는 엄격하게 분리된 측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양자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체제를 정련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¹³⁾

불교교육학의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증위주

12) 응용불교학의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대표적인 학문으로는 불교심리학, 불교 사회학, 불교 상담학, 불교와 정신치료학 등이 있다. 대표적인 학자중 한사람인 J.Wellwood는 불교의 위빠사나 명상법을 정신치료학 분야에 응용한 바 있으며, 초월주의 심리학자인, Ken Wilber등은 초월 심리학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불교의 관점을 원용하고 있다. K.Wilber, 조효남 옮김, 《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감각과 영혼의 만남, 서울: 범양사 출판부, 2000.

13) 불교교육학 연구는 연구의 체제적인 측면에서 협동연구(collaborative)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불교교육학 분야에 있어서 협동연구는 불교와 교육학과 같은 학문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론가와 실천가, 종교인과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적극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불교교육학 연구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실에 대한 탐구와 당위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가치탐구의 두 측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불교교육학 연구 방법론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 논증적 방식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방법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교교육학에 있어서 논증적 방식 이외에도 ‘실험’이나 ‘임상’, ‘관찰’의 방식에 의한 연구의 진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통계적 처치를 통한 실증적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1. 과제

불교 교육학은 지난 30년간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제 불교교육학은 불교 교육학 고유의 정체성 확립해야 하고, 연구전반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교육학은 불교(학)적 연구와는 차별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의 교육학의 연구 분야와도 다른 관점에서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는 먼저 불교적 이론과 개념체계를 적절히 해석하고, 교육학적 범주에서 차용 가능한 ‘이론(theory)’과 ‘학술어(terminology)’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불교적 이론이나 용어가 교육학적으로 차용되기 불가능하거나 불교와 교육학적 용어가 아닌 제 3의 이론이나 학술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적 용어와 이론체계를 교육학적 학문공동체내에서 보편적 이해가 가능한 이론이나 용어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불교 교육학 연구가 불교적 세계관이나 관점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학적 학문공동체내에서 그것이 학문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불교교육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교사상이나 진리체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용어를 교육학적 문제의식 속에서 적합하게 가다듬고, 이론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불교 교육학적인 특수성과 보편성 두 측면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교육학적 연구의 출발이 서양에서 비롯되었고, 사용되는 학술어와 사고체계가 서양위주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교교육학은 교육학의 분과학문이라는 점에서 교육학적 논의와 인식의 틀 속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불교적 사상이나 진리체계에 내포된 교육적 의미를 불교적 언어를 통해 불교적 인식의 차원에서만 설명가능하다면, 실제로 불교적 사상이나 진리체계가 교육학적 가치와 학문적 설득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불교교육학적 연구에서 진리체계와 이론을 교육학적 범주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 이해, 분석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최근에 응용불교학적 방법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임상적 실험, 실천적 체험에서 나타난 사실적 근거위에서 의미를 창출하려는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전망

불교 교육학 연구는 ‘불교’라는 종교를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수성을 부정적 의미에서 본다면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일종의 연구의 독자성을 이루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불교 교육학적 연구는 기존의 교육학 분과 연구의 분야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교육학적 문제(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구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교육학 연구는 현대사회가 교육학 연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교육학 연구가 종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역사, 사회적 맥락속에 존재하는 교육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가 역사, 사회적 맥락을 초월하는 측면이 있지만, 불교교육학(연구는) 학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교육학계에 주목을 끌고 있는 ‘영성교육(spiritual education)’과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은 불교교육학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성교육이나 홀리스틱의 경우, 종교성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여타의 종교나 사상에 대한 개방적 시각을 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학적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교교육학의 연구의 경우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불교적 색채를 강조하지 않고 불교의 교육적 가치를 교육학적 보편타당성의 토대위에서 언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불교교육학 연구가 앞에서 추상적인 논의형식에서 벗어나 교육현실이나 교육적 실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불교교육학 연구가 불교적 특수성에 기초하되 불교적 관점이나 세계관이 교육학적 학문범주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불교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교육학은 명실 공히 ‘불교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educational research on Buddhism)’가 아니라, ‘불교의 교육학적 연구(educational research of Buddhism)’로서 성숙,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박선영, 〈불교적 교사관 연구〉, 《教育學 研究》 제 13권 제 2호, 한국교육학회, 1975.
- 朴先榮, 《佛敎와 敎育社會》, 서울: 保林社, 1983.
- 박선영, 《佛敎의 敎育思想》, 서울: 同化出版公社, 1989.
- 박선영, 〈현대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 《宗教敎育學研究》, 제 1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 7-16.
-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宗教敎育學研究》, 제 1권, 한국 종교교육학회, 2005, 35-59.
- 박성혜, 〈21세기를 위한 교육: Holistic Education〉, 한국홀리스틱 교육실천학회, 홀리스틱 교육실천 연구 총합본 1, 1999, 39-44.
- 손원영, 김지혜,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추계학술대회 학술집, 2005.
- 서광 편역, 《상담불교심리학 입문》, 서울: 불광출판사, 1997.
- 서명식, 《선문답의 탈근대 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9.
- 呂 益九編, 《佛敎의 社會思想》, 서울: 민족사, 1981.
- 장상호, 《학문과 교육학 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정혜정, 〈종교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 국내외 불교교육학을 중심으로 -〉, 《宗教敎育學 研究》, 제 21권, 한국 교교육학회, 2005, 31-60.
- Dewey, J. 《common faith》, New Haven and London: Yale Press, 1972.
- Fromm E, 鈴木大拙 외, 《禪과 精神分析》, 서울: 정음사, 1987.
- Jhonnason, R. E. 《불교심리학》, 박태섭 옮김, 서울: 시공사, 1996.
- Mayer, F. 《위대한 교사들》, 성기산 역, 서울: 문음사, 1998.
- Sealy, J. 《종교교육이론》, 강돈구, 박진원 옮김, 서울: 서광사, 1992.
- Seiffert, H, 전영삼 역, 《학의 방법론 입문 II: 비분석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 교보文库, 1994.
- Smuts, J. C., 《Holism and Evolu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26
- Wilber, K, 조효남 옮김, 《감각과 영혼의 만남》,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4.
- Wellwood, J. (ed.), 박희준 옮김, 《동양의 冥想과 서양의 心理學》,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87.
- Wellwood J. (ed.) 최해림 역, 《심리치료와 冥想》,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89.

원고접수: 2006년 5월 5일 1차심사: 5월 16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 소개: 고 진 호

① 전공: 교육과정의 철학/ 소속: 동국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교육과정, 교육철학, 불교교육학

③ 주요논저: 《교육의 철학적 이해》, 《게쉬탈트 심리치료와 위빠사나 선의 상보성》

④ E-mail: kojinho@dgu.edu

Abstract

The Task and Vision in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Ko, Jin-Ho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study about the task and vision in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In the aspects of identity,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have the double phases which can function to mad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as a typical studies. The first phase in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identity lies on the Buddhism which have the Buddhist wisdoms and doctrines. The second phase in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identity lies on the science of education as a objective studies.

And so, the pursuit for balance and harmony between double phases which made identity directly means to accomplish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In order to get orientation of research areas in the science of education, we have to study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s identity based on double phases.

In this article the research areas which are composed of research theme & contents and research frame & methodology were categorized by the discussion of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s identity. Like the part of discussion about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s identity, the research theme contents and research frame and methodology need to pursuit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double phases: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Finally, based on the foregoing discussion, the task and vision which seem to encourage development in the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science of Buddhist education, identity, particularity, universality